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0. 1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,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존중하여 적기에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(이데일리 1.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,
 - 국민·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전문가로 출범(’19.5)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 -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실행계획 마련(’19.8) 이후 동 계획에 근거하여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진행 중이며, 전문가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·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본격 의견수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
 -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 실행기구는 ‘19.11월 출범하여,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.
- 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, “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- ◇ 1월 29일 이데일리 <월성원전 고사위기 방관하는 정부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2년째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으며, 아직 방법과 절차도 확정하지 못함
 -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,
 -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법률·소통·조사방법 등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('19.5월~)
 -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의제와 방법 등에 대한 심층논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('19.8월)하였으며,
 - 동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'19.11월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음
 - 전문가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·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
 -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 실행기구는 '19.11월 출범하였으며,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
-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, “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

문의 :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(044-203-5340) / 류재형 사무관(5318)